

미술치료모델로서의 칸딘스키 작품분석

Analysis on Kandinsky's work as a case study of Art Therapy

방경란

천안대학교 정보통신학부

Bang, Kyung-Rhan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Cheonan Univ.

• Key words: Kandinsky, Art Therapy, Gestalt Psychology

1. 서론

본 연구는 형태와 색채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한 칸딘스키의 작품을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작품분석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미학적 접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미술치료관점에서의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술매체를 통한 인간의 정서적 영향력을 증명하고 기존의 미술치료와는 차별화 된 치료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술에 있어서 색채와 형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본 연구에서는 형태로 한정하였다.

미술작품의 대상물로서 칸딘스키의 작품 중 1923년에 제작된 '원 속의 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미술치료모델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칸딘스키의 형태론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작가가 유도하고 있는 관객의 심리적인 정서를 유추하고 해석한다. 둘째, 미술치료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작품을 해석한다.

인간정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각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미술치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2. 칸딘스키 관점에서 바라 본 작품분석

2-1. 작품 '원 속의 원' 형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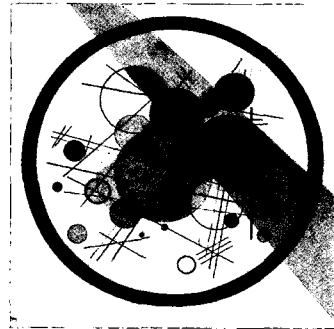
칸딘스키가 1923년에 제작한 '원 속의 원(CERCLES DANS CERCLE)'은 원(圓)에 의한 구성을 탐구하고 있던 작가가 여러 가지 색상의 원을 구성하여 전개한 작품이다. 연구자는 본 작품을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서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의 4가지형태로 분석하였다.

원(圓) 그 자체가 기본적 모티브가 되어 화면 중심에 집중하고 교차, 중단 등으로 '4차원의 공간'이 형성되어 칸딘스키가 말하는 '정의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¹⁾

작품 '원 속의 원'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다양한 크기의 중첩된 원(圓)이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칸딘스키가 추구하고 있는 형태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의 '원(圓)'은 점의 요소로 혹은 면의 요소로서 인식된다. 원(圓)의 형태와 더불어 교차되고 있는 다양한 굵기의 대각선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으며, 대각선은 면의 요소로 혹은 선의 요소로 중첩되고 있다. 칸딘스키의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원(圓)은 1920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칸딘스키의 그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자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운 창조력을 원(圓)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원(圓)이 하늘을 지배하는 태양과 무한대를 의미한다는 상징에서 비롯된 것이며, 칸딘스키만의 독창적인 상징세계이다.²⁾

<그림1>원 속의 원 칸딘스키 작. 캔버스에 유채, 97x96cm, 1923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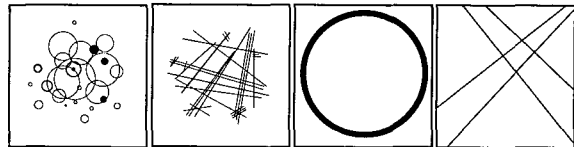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2-2. 칸딘스키와 '점·선·면'

본 작품의 형태요소는 점과 원(圓), 선과 사각형으로서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과 선, 면의 관계는 상대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칸딘스키는 [표1]에서와 같이 직선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온도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표 1] 칸딘스키에 의한 직선의 부식

수평선	차고 무한한 움직임
수직선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
대각선	차고 따뜻한 균등한 일체감

본 연구자가 분석한 각각의 형태요소를 칸딘스키의 형태론에 대응하여 해석하면, <그림1-1>과 <그림1-2>의 중심부에 몰려있는 형태들은 '서정적'인 울림을 띤 구성이다. 또한, <그림1-4>는 사각형의 테두리에 접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칸딘스키는 원(圓)이 근본적으로 사각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적 긴장을 간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원(圓)의 경계가 지닌 압력이 직사각형의 형태들에 비해 고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평가한다.³⁾ <그림1-3>의 커다란 원(圓)은 곡선의 형태로서 분석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구성되어 있는 점, 선, 면의 다양한 형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심문섭, 『칸딘스키』, 서문당, 1994, p.29.

2) 김숙경, 『칸딘스키』, 도서출판 재원, 1995, pp.73-75.

3)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1985, pp.47-55.

3. 미술치료 관점에서의 형태분석

3-1. 미술치료와 인간심리와의 관계

미술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작품의 미학적 성격이 주된 고려사항이다.

미술치료사 이디스 크레이머(Edith Kramer)는 미술치료사가 사람들이 예술적 표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의도나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환자의 원활한 표현향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미술작품 제작과정에 개입해야 된다는 점을 새롭게 제안했다. 다양한 미술치료접근방법 중에서 이러한 방법을 '제3의 손 접근법'이라고 한다.⁴⁾ 이러한 방식은 인간이 창의적인 행동을 선보이며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미술치료평가에 있어서 그림의 형식이란 객관적인 기술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림의 내용은 주관적 느낌과 통찰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때로는 모호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각각 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표 2]는 미술치료에서 평가하는 주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들이 높게 나올수록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평가한다.⁵⁾

미술표현을 통하여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때에는 다양한 주변요인들을 고려해야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술로 표현된 다양한 형식의 요소들을 통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환자의 심리상태를 가능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표현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의 특징과 해석을 최종적으로 규합하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표 2] 미술치료 평가요소

그림의 형식	그림의 내용	색의 사용
공간사용정도 화면에서의 위치 미술재료의 선택 중요대상의 크기 필압(drawing pressure) 선의 성질(line quality)	완성도 전체적인 짜임새 왜곡과 생략 추상적 표현 경직된 대칭 주제 및 제목 반복	색사용의 수 색의 내용적 의미

3-2. 미술치료대상모델로서의 '원 속의 원'

본 작품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는 원(圓)이다. 원(圓)은 공간을 둘러싸 그 원(圓)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서 원이 '영원'을 상징한다고 널리 알려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圓)은 신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 되었다. 용은 만다라에 나타나는 원상을 '보호적인 원상' 혹은 수많은 민속적인 관습에 나타나는 '우아한 원상'이라고 하였다.⁶⁾

4) 캐시 A.말키오디, 앞의 책, p.266.

5) 주리에,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학지사, 2001, pp.92-105.

6) 수잔 핀처,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역, 학지사, 2001,

작품 '원 속의 원(CERCLES DANS CERCLE)' 에 나타난 형태의 요소들을 그림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반복되는 원(圓)의 형태는 중심부로 시각이 집중되고, 전체적인 공간사용정도, 화면에서의 위치, 대상의 크기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정돈된 그림의 형식과 더불어 추상성의 반복 표현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된 강한 자기방어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의 형식과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핵심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자아의 표현'이다.

본 작품에서 분석된 시각형태요소들의 구성은 '긍정적인 자아'를 기대할 수 있는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작품'원 속의 원' 형태분석

그림의 형식	그림의 내용
①공간의 밀도가 높고, 공간사용정도가 높다. ②화면의 중앙위치 ③중요대상의 크기는 적당 ④필압의 정도는 일관되고 안정적 ⑤선의 성질은 곧고 짙은 선으로 묘사	①전체적인 짜임새:정돈된 구성 ②추상적 표현: 자기방어에서 출발된 안전에 대한 욕구 ③원과 선의 반복적 표현

4. 결론 및 제언

한 그림에 대한 인간의 모든 반응이 동일할 수는 없다. 하나의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느낌을 받으며 감상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의 기본형태를 지각하는 기초적인 시각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미술치료'의 내용은 환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미술치료'와는 상반된 입장에서의 접근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다소 이해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정확한 용어설정이 시급하며,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는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치료의 모델이 되는 작품은 하나하나 분절된 이미지를 개발하고 구성하여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미술치료작품은 인간심리에 기초를 두고 출발하고 있으며, 작품내용에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각이미지는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 주고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결국 미술매체를 통한 이러한 치료과정은 인간의 자기개발과 정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미술심리치료방법으로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주리에,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학지사, 2001
-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1985
- 中島健藏 外, 『カンディンスキと表現主義』, 中央公論社, 1973